중소·사회적기업 살린다

익산시, 총 12개 사업 47억 9000여만원 투입

금융지원 한도 대폭 확대·사업집행 속도 등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 사회적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지난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중소·사회적기업의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개 사업, 47억9,000여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업체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융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돌입했으며 다음달 추경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보험료를 기업 당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앞서 익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시작 시점인 지난 2월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총 18개 업체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와 택시업계에 긴급 지원이 실시된다. 관광업계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 비용이 지원되며 2억4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사실 상 개점휴업 상태인 해당 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추후 관광업계가 회복되는 시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숙박, 여행업 등 지역에 등록된 관광업체 80여곳으로 심사를 통해 1곳당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운행 횟수 감축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택시 업계에도 지원의 손길이 이어진다.

익산시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한도액도 기존 2만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에서 영업 중인 택시 1,400여대가 대상이며 3억5천만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선지급하고 경영 악화 기업 지원금을 2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택배비와 홈쇼핑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여객선 중단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군산 비안도·두리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도선 운항이 지난해 12월 18일 취항식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운항길로 들어섰다.

군산 비안두리호, 오늘부터 증편 운항

1일 3회 왕복, 주민불편 최소화

군산시는 여객선 중단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비안도·두리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도선 운항이 지난해 12월 18일 취항식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운항길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용객 수요를 감안해 4월 1일부터 1일 2회에서 3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해 주민과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비안두리호 첫 취항 이후 주민들의 안전한 육지 나들이는 물론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침체된 섬 전체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그동안 도선 이용실적은 ▲작년 12월 시범 운항기간(13일간) 중에는 총 323명(주민 209명, 외지인 114명)으로, 일평균 25명이 이용했으며, ▲본격적인 운항이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총 938명(주민 683명, 외지인 255명)으로, 일평균 30여 명이 이용했다.

시는 3개월여 운항기간 동안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보완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비안두리호 선박 소독과 예방수칙 준수에 앞장서는 등 비안두리호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도선 뱃길과 함께 비안도 어항이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촌으로 개발돼 군산의 새로운 명소로 비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역 총력

민관군 합동 '소독의 날' 추진

군산시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군산소독의 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1월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군산소독의 날은 제35보병사단 군산대대 및 공군 제38전대 군부대, 읍면동 자생단체,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1,000여 명이 각 읍면동별로 참여해 코로나 확진자 격리치료 시설과 선별진료소 주변, 산업단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치료시설인 군산의료원 주변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동군산병원 주변에 대해 군부대 제독차량 3대를 활용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과 협업을 구축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꽁당보리축제도 내년 기약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결정

군산꽁당보리축제위원회(위원장 성낙도, 김용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4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5회 군산꽁당보리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군산 대표 농업축제인 군산꽁당보리 축제는 지리적특산품인 군산보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위상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감염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대책 회의를 열고 정상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배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보리를 이용한 경관 축제의 특성상 개최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어렵고, 축제 진행 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인한 대민 접촉 또한 피하기 어렵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내년 축제가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기업별 최대 400만원까지

익산시가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업별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이 사업은 수출거래시 발생되는 원화·환율변동, 수출대금 미회수 등 기업이 수출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서 한국무역공사 전북지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수출기업들이 신시장 개척과 안정적 수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기업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총 34개기업에 4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보다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기업별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미회수된 수출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해외 신시장 개척을 준비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첫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30일 회의를 열고 36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1억원,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2억원, ▲감염증 방역체계 구축 사업 9억원 등이 담겼다.

조규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침수피해 예방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

군산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대비시설인 배수펌프장, 수문, 우수저류조, 유수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담당 공무원, 기계·전기설비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람(행정안전부)'의 점검 기준에 따라 펌프 작동 상태, 배전반, 스크린과 제진기 등의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30일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룡 배수펌프장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직접 펌프 조작을 하는 등 꼼꼼하게 살피며 중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해 우기시 방재 시설물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